

# 가구주 연령별 소득불평등 변화 요인 분석

김진욱\*, 정의철\*\*

2002년과 2007년의 노동패널을 사용하여 분석한 본 연구는 가구주 연령층별(5세로 구분) 소득불평등의 변화를 소득원천별로 분해하여 분석하였다. 2002년과 비교하여 2007년의 소득불평등은 0.01p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기준으로 소득불평등이 개선된 연령층은 25-29세, 40-44세, 55-59세, 60-64세였으며, 나머지 연령층은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다. 2002년과 2007년의 소득계층이 변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연령층별로 소득계층을 빈곤층, 중산층, 부유층으로 구분하였다. 소득불평등과 소득계층이 변한 가구 수 사이에는 규칙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2002년과 2007년 사이에 소득불평등이 0.05p 이상 변화한 연령층은 30대 초반 가구주 가구(분배가 개선)와 50대 초반(악화), 60대 초반(악화) 이었다. 이들 연령층의 소득불평등 변화를 소득원천별로 분석한 결과 나이가 들수록 근로소득 비중이 커졌고, 2002년보다 2007년의 근로소득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계측되었다. 소득분배가 악화되면 근로소득의 상대적기여도가 줄어들고, 부동산 소득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0대 이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부동산 소득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과 제도개혁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 I. 서론

외환위기 이후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부유층의 세원 확보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려고 하였으나,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들 정부의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결과라고 판단되며, 소득불평등의 악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정책을 실시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가구주 연령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소득불평등을 소득원천별로 분석하여 효과적인 소득불평등 해소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

\* 건국대 경제학전공 교수

\*\* 건국대 부동산학과 부교수

본 연구에서는 2002년과 2007년의 동일한 가구를 추출하여 가구주 연령(5세) 별로 집단화하여 패널 자료(panel data)를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한 데이터(data set)를 이용하여 첫째, 각 연령 집단별로 소득 계층을 빈곤층, 중산층, 부유층으로 구분하여 2002년과 2007년 사이의 소득 계층이 변한 가구를 산출한다. 둘째, 동기간 동안 소득 계층이 변한 가구의 수(소득계층이 상승한 가구, 소득계층이 하락한 가구 등)를 비교하여 소득불평등의 변화 원인을 계측한다. 셋째, 소득불평등의 변화를 소득원천별로 분해하여 측정한다. 넷째, 소득원천별 소득불평등 변화 요인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한다.

## II. 자료 및 선행연구

### 1. 분석자료

본 절에서는 분석 자료를 설명한 후 연구에서 사용할 소득을 설명하고, 분석단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 가. 표본의 선정

우리나라의 소득에 대한 실태조사는 특히 조사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적 대표성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 KLIPS) 자료는 기존의 「도시가계조사」에서 제외되었던 1인 가구와 비임금근로자 가구를 포함하고,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구주 정보 및 가구소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가구추적을 통하여 급변하는 경제위기 전후의 가구소득의 동태적인 변화를 어느 정도 파악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농어촌 가구가 제외되어 전체가구의 소득불평등을 과소 추정할 우려가 있다.

한국노동패널에서는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의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기본적으로 '작년한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sup>1)</sup>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소득을 전부 합한 총소득을 이용하였다.

각 영역별 가구소득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소득은 가구원 중 근로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의 총액을 의미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등도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다만, 자산의 가치가 변화하였다더라도 실제

---

1) 한국노동패널의 소득은 통계청의 소득분류 중 경상소득의 재산소득을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주식의 시세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주식을 사고팔지 않은 경우)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부동산을 임대해서 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부동산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보험소득은 가구원 중 누구라도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및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험을 수급한 경우, 그 액수의 총액을 의미한다. 이 전소득은 가구원 중 누구라도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친척, 친지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보조금을 받은 경우, 그 총액을 의미한다. 기타소득에는 보험금 지급이나 퇴직금, 복권 탄 돈과 같이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소득의 총액을 의미한다. 한편, 노동패널조사에서 가구의 소득은 전년도 한 해 동안 얻은 소득으로 세후소득<sup>2)</sup>을 의미하며 연간 총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 연령을 5세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5세로 구분하여 각 계층의 소득불평등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최근인 2007년과 5년 전인 2002년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패널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에 첫째, 동일가구를 분석해야 하므로 동일가구가 아닌 경우(ID가 다른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둘째, 소득에 대한 자료가 있는 가구와 셋째, 가구주 연령을 2002년 기준으로 25세 이상 65세 미만 가구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여러 과정을 거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가구 수는 2,804 가구이었다.

#### 나. 분석단위

개인이 아닌 가족이나 가구를 단위로 할 경우에는 어떤 측정단위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의미와 측정치가 달라진다. 상이한 규모와 구성에 따라 단위의 욕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구의 규모의 경제와 구성을 고려하는 방식이 "균등화 지수"(Equivalence Scale)이다.

가구별로 가구소득을 중심으로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가구원 수가 상이하므로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에 따라 조정하여 동등화 한 후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OECD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구 균등화 지수인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서 계산된 균등화된 소득(equivalized income)을 기준으로 소득불평등을 도출한다.

$$Y^* = \frac{Y_i}{\sqrt{S_i}}$$

여기에서  $Y_i$ 는  $i$ 가구의 소득,  $S_i$ 는  $i$ 가구의 가구원수,  $Y^*$ 는  $i$ 가구의 균등화된 소득이다.<sup>3)</sup>

2)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와 「도시가계조사」의 경우 소득은 세전소득을 조사하고 있는데 반해 「KLIPS(한국노동패널)」는 조세를 제외한 세후소득을 측정한다.

3) 균등화소득은 1인당 소득과 비슷한 개념인데,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것이 아니고 가구원 수의 제

본 연구에서도 한국노동패널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총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소득을 소득불평등도 측정단위로 활용하였다.

## 2. 선행연구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재산소득(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사회보험 소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소득원천이 가구소득의 불평등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를 요인 분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소득불평등도 변화와 소득의 원천별로 요인 분해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정진호 외(2002)의 연구에서는 도시가계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근로자가구의 소득분배를 경제위기 전·후를 기준으로 가구주 근로소득을 통해 자체 지니계수, 유사 지니계수, 누적 지니계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의 불평등도에 미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산소득의 기여도는 여전히 낮고,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적어도 임금근로자에 관한 한 재산소득이 전체 소득의 불평등도에 미친 기여도가 그다지 크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여유진 외(2005)의 연구에서는 1996년, 2000년 가구소비실태자료와 2003년 국민생활실태자료를 통해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근로소득 + 재산소득 + 사업소득 + 이전소득 -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기준으로 소득불평등을 계산한 결과 점차적으로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천별로 분석한 결과 임금불평등이 악화되어 소득불평등이 나빠진 것으로 계측되었고, 정부의 정책적 효과도 미미하지만 증가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즉, 이전소득은 전체 소득에 대한 불평등 개선 효과는 매우 미미하지만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불평등 완화의 한계효과가 다소 커져 세금 및 사회보장 기여금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차츰 개선되고 있음을 밝혔다.

최바울·김성환 (2005)의 연구에서는 불평등 요인을 분석하면서 엔트로피 지수 분해를 통해 소득원천별 기여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경제위기 이후의 불평등도가 기존에 논의되던 것보다 훨씬 높았으며 뚜렷한 개선이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불평등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근로소득이었으나 점차 그 기여도가 하락하였으며 대신 자산소득(부동산소득과 금융소득) 및 기타소득의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강신욱 외(2006)의 연구에서는 2003-2005년 동안 가계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원천별 지니계수를 분해한 결과 연도별로 각 소득요소의 집중지수, 각 소득요소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총소득과 각 소득요소 간의 상관계수가 이 기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각 소득요소가 총지니계수에 미치는 절대적·상대적 기여도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근로소득이 총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았으며, 세금과 사회보장기

---

곱근으로 나눈 소득이다. 가구원 수의 차이를 고려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누는 것이지만, 이렇게 할 경우 가계소비에서 발생하는 고정비용, 즉 규모의 경제가 고려되지 않게 된다. 가족 수가 두 배가 된다고 해서 지출이 두 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sqrt{2}$  배 정도 된다는 것이다.

여금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과 같은 정진호 외(2002), 여유진 외(2005), 강신욱 외(2006)의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전체 가구(혹은 전체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가구주 연령별로 계층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원종학·성명재(2007)의 연구에서는 가구주 연령별로 구분하여 지니계수를 집단내 지니계수(intra-Gini index)와 집단간 지니계수(inter-Gini index)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이는 중복효과(overlapping effect) 때문에 해석상에 한계를 갖고 있다.

하두나(2008)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노동패널을 사용하여 부동산소득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를 통해 각 소득 원천별로 기여도를 파악하고, 한계효과를 통해 불평등 정도를 분석한 결과 소득불평등의 상승에 부동산소득의 기여도가 주목할 만한 증가율을 보였고, 소득에 대한 부동산소득 비중이 증가하고, 전체소득에 대한 한계불평등효과가 커지는 상황을 볼 때 부동산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대한 영향력은 증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비중이나 기여도가 줄어들고, 사회보험소득과 이전소득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두나의 연구도 전 계층을 시계열로 분석하였지 가구주 연령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김혜련(2008)은 도시가계자료와 가계자료를 이용하여 1986~2007년까지 의사 패널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가구주 연령별·성별·교육수준별 48개의 cohort를 구축하여 cohort별로 소득과 지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가구주 연령별로 세분화된 소득분배 변화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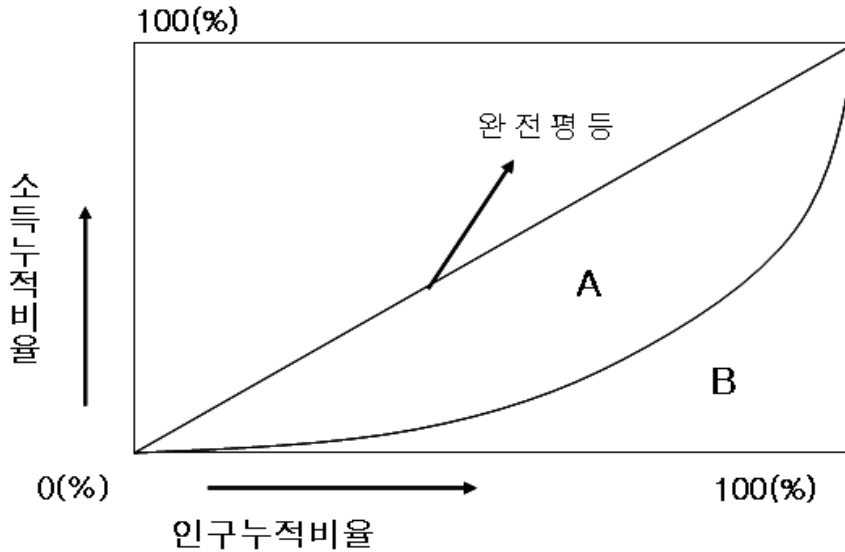
### III. 분석방법

#### 1. 지니계수

본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니계수는 해당 가구가 얻는 소득의 누적분배에 대해 가구의 누적분배를 최저소득 가구에서 최고 소득가구로 그려 얻는 로렌츠 곡선을 이용하여 추계된다. 즉 로렌츠 곡선과 45° 선에 둘러싸인 면적을 전체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누어 도출한다. ( $G=A/A+B$ )

지니계수는 모든 개인이 동일한 크기의 소득을 가진 가장 평등한 분배 상태를 0으로 하고 불평등도가 증가할수록 수치가 커져 한 개인이 모든 소득을 독점하고 나머지는 소득이 없는 가장 불평등한 분배 상태에 이르면 수치가 1이 된다. 지니계수는 이처럼 분배 상태나 그 변화를 하나의 수치로 간결하게 요약하여 제시하는 장점이 있다.

[그림 1] 로렌츠 곡선



지니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용되는 자료에 따라 다소 상이한 방식을 취하는데, 소득계층별 자료를 이용할 때에는 한 계층의 누적인원비율을  $n_i (i=0,1,2,\dots,N)$ , 그리고 다음 계층의 누적인원비율을  $n_{i+1}$ , 이들 각각의 누적소득 비율을  $y_i, y_{i+1}$ 이라 할 때 지니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해 낼 수 있다.

$$Gini = 1 - \sum_{i=1}^n (y_i + y_{i+1})(n_{i+1} - n)$$

그런데 원시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지니계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도 있다.

$$Gini = \left(\frac{1}{2n^2\mu}\right) \sum_{i=1}^n \sum_{j=1}^n |y_i - y_j|$$

지니계수는 앞에서 언급한 불평등지수들과 다르게 평균에서의 차이에 집중하는 것을 피하고, 임의적인 제곱과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않는다. 모든 수준에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이전에 민감한 성질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적인 방법을 취한다. 지니계수는 모든 쌍의 소득들 간의 차이에 주목하면서, 직접적으로 소득차이를 측정한다는 또 다른 장점이 존재한다.

## 2. 지니계수 분해 및 활용

### 가.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방법

지니계수 분해 방법은 몇 가지가 있으나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Lerman-Yitzhaki(1994)의 공변량법을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분해하고자 한다. 이는 소득의 원천별로 지니계수를 분해함으로써 특정 소득원천의 한계적 변화가 총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sup>4)</sup>

본 연구에서 사용할 지니계수 분해방법은 Lerman-Yitzhaki의 도출 식에 따라, 소득원천별 소득과 총 지니계수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G = \sum_{k=1}^K \left[ \frac{\text{cov}(x_k, F)}{\text{cov}(x_k, F_k)} \cdot \frac{2\text{cov}(x_k, F_k)}{m_k} \cdot \frac{m_k}{m} \right] = \sum_{k=1}^K R_k G_k S_k$$

여기에서  $R_k$ 는 소득원천  $k$ 의 순위와 총소득의 순위 간의 지니상관계수로 규정되고,  $G_k$ 는 소득원천  $k$ 의 상대지니(요인 $k$ 에 대한 집중지수)이며,  $S_k$ 는 소득원천  $k$ 의 총소득에 대한 비중이다.(Lerman-Yitzhaki, 1994)

소득원천별 요인분해는 전체 소득이 하나 이상의 소득원천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소득불평등도를 각각의 소득원천별 기여도의 합계로 표현할 수 있다.

### 나. 지니계수의 활용

분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특정 소득원천에서의 한계적 변화가 전체 소득불평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다음은 지니계수 분해 공식을 구성하고 공식을 통해 도출된 지니계수 분해 요소이다.

---

4) 지니 요인분해에 대해서는 Lerman-Yitzhaki(1994), Garner(1993), Woden(1999), Berhanu(1999)를 참고하였다.

〈표 1〉 지니계수 분해 요소

요 소	기 술
$C_k$	소득원천 k의 총소득지니계수에 대한 기여도
$G_k$	소득원천 k의 지니계수
$R_k$	총소득과 소득원천 k의 순위상관관계(지니상관계수)
$S_k$	소득원천 k의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G$	전체 모집단의 총지니계수
$I_k$	소득원천 k의 소득불평등 비중
$I_k / S_k$	소득원천 k의 상대적 소득불평등
$I_k - S_k$	소득원천 k의 상대적 한계효과

예컨대 부동산소득이 총소득의 불평등(지니계수)에 기여하는 정도를  $C_p$ 라고 할 때  $C_p$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C_p = R_p \times G_p \times S_p$$

여기에서,  $R_p$ 는 총소득과 근로소득과의 순위상관관계(지니상관계수)를 나타내며,  $G_p$ 는 근로소득의 지니계수, 그리고  $S_p$ 는 근로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즉 근로소득의 총소득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 $C_p$ )는 근로소득의 지니계수( $G_p$ )에 근로소득과 총소득 간의 지니상관계수( $R_p$ ), 그리고 근로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S_p$ )을 곱한 값이다.

이와 같이 각 소득원천을 l, f, p, s, t, o라 하면 이러한 소득원천이 총소득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를 계산할 수 있으며, 이 소득원천별 소득의 기여도를 모두 합하면 총소득의 지니계수와 동일한 값이 된다. 즉,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text{총소득 지니계수} = C_l + C_f + C_p + C_s + C_t + C_o$$

#### IV. 소득불평등 변화 요인

##### 1. 소득불평등 추이

2002년의 지니계수는 0.374였으며, 2007년의 지니계수는 2002년보다 0.01p 악화된 0.384이었다. 가구주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2002년 기준으로 20대 후반 가구의 소득불평등은 0.320에서 0.284로 개선되었고, 40대 초반(0.345 → 0.316), 50대 후반(0.418 → 0.405), 60대 초반(0.541 → 0.462)은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30대 초반의 경우 지니계수가 0.283에서 0.330로, 30대 후반의 경우에



는 0.334에서 0.367로 소득불평등이 증폭되었고, 40대 후반(0.361 → 0.395), 50대 초반(0.356 → 0.417) 연령층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소득분배가 악화된 계층이 개선된 계층보다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서 전체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소득불평등의 변화 원인을 빈곤층으로 전락한 가구가 많은지 아니면 부유층으로 진입한 가구가 많은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연령층별로 계층 변화를 살펴보았다. 2002년과 2007년 사이에 계층이 변화된 가구 수를 파악하기 위해 중위소득(median income)을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소득계층은 부유층, 중산층, 빈곤층 등 3개 계층이다. 구분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빈곤층으로 정의<sup>5)</sup>하고,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150%에 속하는 계층을 나타내고, 부유층은 중위소득의 1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계층을 칭한다. 본 연구에서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계층이 상승한 가구는 2002년에 빈곤층이었다가 2007년에 중산층 이상 계층으로 이동한 가구이거나 중산층에서 부유층으로 소득이 상승한 가구를 나타내고, 소득이 감소한 가구는 2002년 부유층에서 중산층 이하로 떨어진 가구와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가구를 칭한다.

전체 가구를 보았을 때 소득계층이 상승한 가구는 588가구였으며, 소득 계층이 하락한 가구 수는 494가구로 증가한 가구가 감소한 가구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계측되었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 2002년 기준으로 20대 후반과 50대 후반 연령층을 제외하고서는 소득계층이 상승한 가구 수가 하락한 가구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과 2007년 사이에 소득불평등이 변한 것(개선되거나 악화된 것)과 소득 계층이 상승하거나 하락한 가구 수 사이의 관계에서는 규칙적인 특징을 찾아 볼 수 없다.<sup>6)</sup>

---

5)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빈곤선은 상대적 빈곤선으로 이 빈곤선은 해당 연도의 삶의 수준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계층 정의에 대해서는 김진욱·박창원(2001.) 참조.

6) 예를 들면 2002년 기준으로 30대 후반 연령층은 2007년에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는데, 소득계층이 상승한 가구 수가 65, 하락한 가구 수가 54 가구로 소득계층이 상승한 가구 수가 하락한 가구 수보다 많았다. 그러나 2002년에 40대 초반 연령층의 소득분배는 2007년에 소폭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30대 후반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소득계층이 상승한 가구 수가 94 가구로 소득계층이 하락한 가구 수 91 보다 많은 것으로 계측되었다.

〈표 2〉 가구주 연령 집단별 소득 변화

2002		2007		소득계층 변화가구 수 및 비율		
가구주연령	지니계수	가구주연령	지니계수	구분	가구 수	비율(%)
60-64	0.54118	65-69	0.46222 (-0.07896)	증가	86	27.13
				불변	161	50.79
				감소	70	22.08
55-59	0.41836	60-64	0.40491 (-0.01345)	증가	55	17.80
				불변	183	59.22
				감소	71	22.98
50-54	0.35599	55-59	0.41720 (0.06121)	증가	110	27.71
				불변	218	54.91
				감소	69	17.38
45-49	0.36144	50-54	0.39502 (0.03358)	증가	99	21.15
				불변	289	61.75
				감소	80	17.09
40-44	0.34535	45-49	0.31623 (-0.02912)	증가	94	18.47
				불변	324	63.65
				감소	91	17.88
35-39	0.33449	40-44	0.36674 (0.03225)	증가	65	17.33
				불변	256	68.27
				감소	54	14.40
30-34	0.28338	35-39	0.33047 (0.04709)	증가	63	19.44
				불변	218	67.28
				감소	43	13.27
25-29	0.31953	30-34	0.28387 (-0.03566)	증가	16	15.24
				불변	73	69.52
				감소	16	15.24
전체	0.37393	전체	0.38357 (0.00964)	증가	588	20.97
				불변	1722	61.41
				감소	494	17.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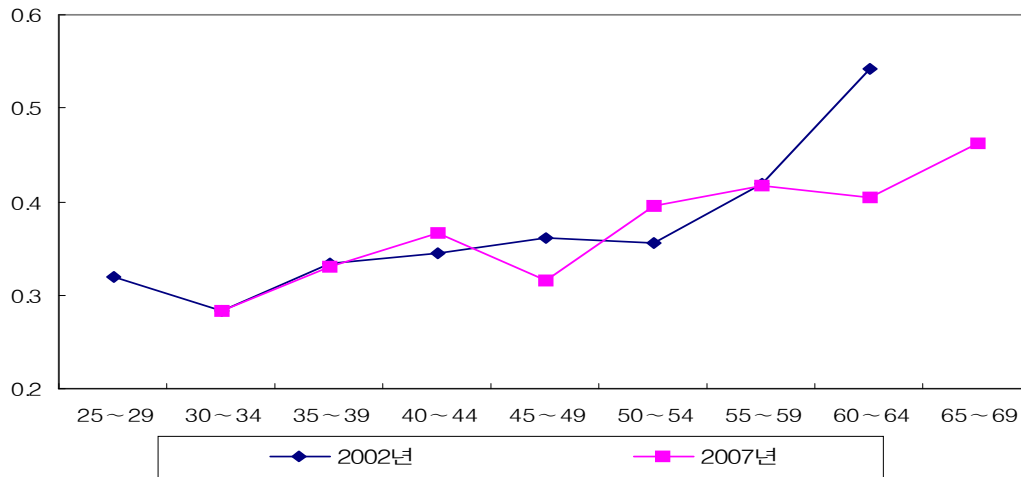
주: 괄호 안은 2002년 대비 2007년의 연령구간별 지니계수 변화분

자료: 한국노동패널 1~10차 조사

가구주 연령별로 소득분배의 변화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그림 1]이다. 2002년도 가구주 연령별로 소득불평등도를 살펴보면 20대 후반보다 30대 초반에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었다가 30년대 후반에는 소폭 악화되고, 40대 초반에는 지속적으로 악화된다. 이후 50대 초반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50대 후반에 악화되고 60대 초반에 더욱 악화된 것으로 계측되었다.

2007년도의 소득불평등도를 살펴보면 30대와 40대 초반까지는 2002년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다가 40대 후반에는 큰 폭으로 소득불평등이 개선된다. 그러나 50대 초반에는 소득불평등이 크게 악화되고, 60대 초반까지 비슷한 소득불평등 상태를 나타내고, 60대 후반에는 큰 폭으로 악화된다. 2002년과 달리 2007년에 50대 초반부터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것은 회사를 퇴직하는 연령이 빨라진 결과라고 추측된다.

[그림 2] 연령별 소득불평등 추이



자료: 한국노동패널 1~10차 조사

앞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2007년의 소득불평등이 2002년 소득불평등보다 악화된 연령층이 있고, 개선된 연령층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이 0.05p 이상 변한 연령계층을 선택하여 소득원천별로 분해하고자 한다. 0.05p 이상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계층은 2002년 기준으로 30~34세 연령층과 50~54세 연령층이었고, 60대 초반(60~64세) 연령층은 소득불평등이 0.08p 개선되었다.

## 2. 평균소득 변화

2002년의 연령별 평균소득을 살펴보면 60대 초반 연령층이 148.7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초반이나 50대 초반 연령층 모두 140만 원 이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5년 후인 2007년의 연령별 평균소득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60대 후반 연령층은 216.6만 원, 50대 후반 연령층은 247.9만원이었으며, 30대 후반 연령층은 159.5만원이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물가상승률 15.5%나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통계청 가계조사의 명목총소득증가율 31.6%와 비교하면 2002년 30대 초반이었던 가구는 2007년에 실질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계층별 평균소득 변화

]

(단위: 천)

	30~34		50~54		60~64	
	2002	2007	2002	2007	2002	2007
총소득	1,441.6	1,595.3	1,483.8	2,478.6	1,487.2	2,166.4
근로소득	954.2	877.4	1,331.9	1,909.8	1,423.7	1,958.8
금융소득	55.8	51.6	22.0	46.3	11.2	16.9
부동산소득	336.6	266.6	93.4	324.7	23.3	54.9
사회보험	77.2	149.2	10.3	50.2	0.5	6.6
이전소득	5.2	218.8	2.6	64.8	1.2	71.0
기타소득	12.6	31.7	23.7	82.8	27.3	58.2

자료: 한국노동패널 1~10차 조사

주: 연령은 2002년 기준임.

### 3. 소득원천별 분해

2002년의 30대 초반의 소득불평등은 0.541에서 0.461로 개선되었는데, 이를 소득원천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불평등은 악화되었으나, 이전소득의 소득불평등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 사회보험에 대한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어 전체 소득불평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초반의 경우에는 지난 5년간 소득불평등이 0.356에서 0.417로 악화되었는데, 이는 근로소득(0.340 → 0.392)과 부동산소득(0.969 → 0.973)의 소득분배 악화에 기인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60대 초반의 경우에도 지난 5년간 0.283에서 0.330으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는데, 이는 근로소득(0.277 → 0.309), 금융소득(0.960 → 0.970), 기타소득(0.965 → 0.980)의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데 기인한다.

<표 4> 가구주 연령 및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연령	연도	분해	총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	이전소득	기타소득
30 ~ 34	2002	지니계수(집중계수)	0.541	0.493	0.957	0.977	0.936	0.974	0.993
		비중 (A)	1.000	0.662	0.039	0.233	0.054	0.004	0.009
		상관계수		0.840	0.671	0.935	0.454	-0.499	0.915
		절대적 기여도	0.541	0.274	0.025	0.213	0.023	-0.002	0.008
		상대적 기여도 (B)	1.000	0.507	0.046	0.394	0.042	-0.003	0.015
		상대적 소득불평등	1.000	0.765	1.186	1.687	0.785	-0.898	1.677
		상대적 한계효과	0.000	-0.155	0.007	0.160	-0.012	-0.007	0.006
		2007	지니계수(집중계수)	0.462	0.601	0.954	0.957	0.804	0.669
	비중 (A)		1.000	0.550	0.032	0.167	0.094	0.137	0.020
	상관계수			0.804	0.606	0.863	0.418	-0.025	0.568
	절대적 기여도		0.462	0.266	0.019	0.138	0.031	-0.002	0.011
	상대적 기여도 (B)		1.000	0.575	0.040	0.299	0.068	-0.005	0.023
	상대적 소득불평등		1.000	1.045	1.250	1.787	0.728	-0.037	1.171
	상대적 한계효과	0.000	0.025	0.008	0.131	-0.025	-0.142	0.003	

연령	연도	분해	총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	이전소득	기타소득
50 ~ 54	2002	지니계수(집중계수)	0.356	0.340	0.966	0.969	0.981	0.973	0.985
		비중 (A)	1.000	0.898	0.015	0.063	0.007	0.002	0.016
		상관계수		0.948	0.342	0.783	0.393	-0.612	0.808
		절대적 기여도	0.356	0.289	0.005	0.048	0.003	-0.001	0.013
		상대적 기여도 (B)	1.000	0.812	0.014	0.134	0.008	-0.003	0.036
		상대적 소득불평등	1.000	0.904	0.928	2.130	1.083	-1.672	2.237
		상대적 한계효과	0.000	-0.086	-0.001	0.071	0.001	-0.005	0.020
	2007	지니계수(집중계수)	0.417	0.392	0.962	0.973	0.959	0.899	0.934
		비중 (A)	1.000	0.771	0.019	0.131	0.020	0.026	0.033
		상관계수		0.902	0.650	0.853	0.292	0.074	0.549
		절대적 기여도	0.417	0.272	0.012	0.109	0.006	0.002	0.017
		상대적 기여도 (B)	1.000	0.653	0.028	0.261	0.014	0.004	0.041
		상대적 소득불평등	1.000	0.847	1.500	1.989	0.672	0.160	1.230
		상대적 한계효과	0.000	-0.118	0.009	0.130	-0.007	-0.022	0.008
60 ~ 64	2002	지니계수(집중계수)	0.283	0.277	0.960	0.989	0.993	0.988	0.965
		비중 (A)	1.000	0.957	0.008	0.016	0.000	0.001	0.018
		상관계수		0.974	0.599	0.856	-0.520	-0.821	0.496
		절대적 기여도	0.283	0.258	0.004	0.013	0.000	-0.001	0.009
		상대적 기여도 (B)	1.000	0.910	0.015	0.047	-0.001	-0.002	0.031
		상대적 소득불평등	1.000	0.951	2.029	2.989	-1.823	-2.861	1.689
		상대적 한계효과	0.000	-0.047	0.008	0.031	-0.001	-0.003	0.013
	2007	지니계수(집중계수)	0.330	0.309	0.970	0.980	0.980	0.901	0.980
		비중 (A)	1.000	0.904	0.008	0.025	0.003	0.033	0.027
		상관계수		0.962	0.798	0.890	0.128	0.413	0.791
		절대적 기여도	0.330	0.269	0.006	0.022	0.000	0.012	0.021
		상대적 기여도 (B)	1.000	0.814	0.018	0.067	0.001	0.037	0.063
		상대적 소득불평등	1.000	0.900	2.342	2.641	0.380	1.127	2.346
		상대적 한계효과	0.000	-0.091	0.010	0.042	-0.002	0.004	0.036

자료: 한국노동패널 1~10차 조사

주 : 1) 연령은 2002년 기준임.

- 2) 지니계수(집중계수) : 소득원천 k의 지니계수
- 3) 비중 : 소득원천k의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 4) 상관계수 : 총소득과 소득원천 k의 순위 상관관계 (지니상관계수)
- 5) 절대적 기여도 : 소득원천 k의 총소득지니계수에 대한 기여도
- 6) 상대적 기여도 : 소득원천 k의 소득불평등 비중
- 7) 상대적 소득불평등(B/A) : 소득원천 k의 상대적 소득불평등
- 8) 상대적 한계효과(B-A) : 소득원천 k의 상대적 한계효과

총소득에서 소득원천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02년 기준으로 30대 초반 연령층 가구의 근로소득 비중이 66.2%인데 비해, 60대 초반 연령층의 비중은 95.7%로 나이가 들수록 근로소득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연도별 소득원천별 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2002년과 비교하

여 2007년의 근로소득 비중이 줄어들고, 사회보험, 이전소득, 기타소득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2년 30대 초반 연령층의 경우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66.2%에서 55.0%로 줄었으며, 50대 초반 연령층 가구는 89.9%에서 77.1%로, 60대 초반 연령층의 경우에는 95.7%에서 90.4%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30대 초반 연령층의 사회보험, 이전소득, 기타소득 비중이 5.4%, 0.4%, 0.9%에서 9.4%, 13.7%, 2.0%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50대 초반 연령층 역시 사회보험이 0.7%에서 2.0%로, 이전소득이 0.2%에서 2.6%로, 기타소득이 1.6%에서 3.3%로 증가하였고, 60대 초반 연령층은 2002년에 사회보험이 거의 없었으나, 2007년에 0.3%로 상승하였고, 이전소득이 0.1%에서 3.3%로, 기타소득이 1.8%에서 2.7%로 증가하였다.

각 소득원천별 상대적기여도를 살펴보면 소득불평등이 악화될 경우(2002년 기준으로 50대 초반 및 60대 초반 연령층)에는 근로소득의 상대적 기여도가 줄어들지만, 나머지 소득원천의 상대적 기여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50대 초반 연령층과 60대 초반 연령층 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81.2%, 91.0%에서 65.3%, 81.4%로 줄어들었다. 소득불평등이 개선되는 30대의 경우에는 2002년에 비해 2007년에 근로소득의 기여도가 50.5%에서 57.5%로 증가하게 된다. 이전소득은 30대의 경우 2002년, 2007년에 관계없이 (-)로 도출되어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0대 초반과 60대 초반의 경우 2002년에는 (-)로 도출되었으나, 2007년에는 (+)로 계측되어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상대적 한계효과의 크기는 지니계수의 크기 변화와는 전혀 상이하게 나타났다. 30대 초반의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지만, 근로소득의 상대적 한계효과는 -0.155에서 0.025로 증가한다. 이와는 반대로 50대, 60대 연령층의 경우 2002년 지니계수가 0.356, 0.283에서 2007년에 0.417, 0.330으로 소득분배가 악화되었으나, 근로소득의 상대적 한계효과는 -0.086, -0.047에서 -0.118, -0.091로 값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소득의 경우 소득불평등이 악화될수록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소득불평등을 설명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소득불평등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 연령층을 5세로 구분하여 각 연령층별로 2002년과 2007년의 소득불평등을 분석하고,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요인을 찾고자 소득원천별로 분해하여 분석하였다.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가구별 소득을 균등화된 소득으로 전환하여 전체 가구에 대한 소득불평등을 계측한 결과 2002년보다 2007년에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배가 개선된 연령층은 2002년 기준으로 20대 후반(25~29), 40대 초반(40~44), 50대 후반(55~59), 60대 초반(60~64)이었으며, 소득분배가 악화된 연령층은 30대(30~34, 35~39), 40대 후반(45~49), 50대 초반(50~54)이었다. 이러한 소득분배가 개선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한 계층 가운데 지니계수가 0.05p 이상

변화된 연령층(30대 초반, 50대 초반, 60대 초반)을 중심으로 소득원천별로 분해하였다.

소득원천별로 소득불평등 요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지난 5년간 소득계층이 변한 가구를 계측하고자 소득계층을 빈곤층(중위소득의 50% 이하),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 부유층(중위소득의 150% 이상)으로 구분하여 2002년과 2007년에 각 가구의 소득계층을 도출한 후 계층이 상승한 가구와 계층이 하락한 가구를 도출하였다. 각 연령층별로 소득불평등이 변한 것과 계층이 변한 가구 수 사이에는 공통적인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소득원천별로 분해한 결과에 의하면 30대 초반 연령층은 근로소득 비중이 66.2%(2002년), 55.0%(2007년)에 불과하였는데, 50대 초반의 경우 각기 89.8%, 77.1%로 증가하였으며, 60대 초반 연령층 가구는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의 95.7%, 9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근로소득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2년에 비해 2007년에 근로소득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소득분배가 악화되면 근로소득의 상대적 기여도가 줄어들고, 부동산소득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의 기여도를 높이고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5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게 도출되었고,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소득분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50대 이상 연령층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소득분배 개선에 일조를 담당할 것이다. 부동산 소득의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동산소득에 의한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부동산 소득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공평한 과세와 같은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의 변화와 소득계층의 변화 사이에 규칙적인 형태를 찾지 못하였으나, 소득계층이 변한 가구의 가구 수뿐만 아니라 소득의 변화 정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하면 소득불평등과 소득계층 변화 사이에 일정한 관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신욱 · 여유진 · 김진욱 · 김태완 · 최현수 · 임완섭 (2006), 『우리나라의 빈곤 및 불평등 관련 지표 변화 추이 -주요 OECD 국가들과의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진욱 · 박창원 (2001), “소득계층의 실태와 특성에 관한 분석,” 『공공경제』, 제6권 제2호, 한국공공경제학회
- 김혜련 (2008), 『우리나라 가구의 생애소득 및 생애지출 현황과 소득분배 분석 -가계조사를 이용한 의사패널을 중심으로-』, 통계개발원 경제통계실
- 여유진 · 김미곤 · 김태완 · 양시현 · 최현수 (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원종학 · 성명재 (2007), 『소득분배 격차 확대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정진호 외 (200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02-04, 한국노동연구원
- 최바울 · 김성환 (2003), 『경제위기와 소득 불평등: 1997년 이후를 중심으로』, 제4회 노동패널학술대회
- 하두나 (2008), 『부동산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Berhanu, S. (1999), "Economic Analysis of Household Expenditure," *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West Virginia University
- Garner, T. I. (1993), "Consumer Expenditures and Inequality: An Analysis Based on Decomposition of the Gini Coefficient,"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 Lerman, R. I. and S. Yitzaki (1994), "Effect of Marginal Changes in Income Sources on U. S. Income Inequality," *Public Finance Quarterly*, Vol.22, No.4.
- Woden, Q. (1999), "Between Group Inequality and Targeted Transfer,"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45, No.1